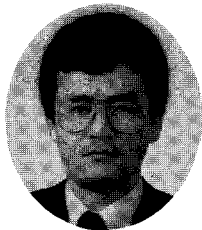


환경오염의 실태 및 그 해결방안



金鍾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I. 머리말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고 '70년대부터의 중화학공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지 30년이 지나는 시점이 바로 '90년대이다.

그동안에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누적된 오염물질로 인하여 중대한 환경사고 내지는 대형환경오염피해가 빈발하리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예로 보건데, 대체로 유해산업폐기물이나 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상의 심각한 피해현상이 중화학공업이나 석유화학공업이 시작된 후 30-40여년 정도를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환경위기의 해소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동안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여건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사실은 국민일반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왔고,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의식수준도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보전의지도 더욱 확고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사업장의 경우는 노사문제보다도 더욱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라든지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환경보전캠페인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기로 여기고 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상적인 가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기업주의 의식변화를 위시해서 환경오염방지 투자홍보를 제품광고 만큼이나 신경쓰는 모습, 적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환경행정기구의 확대 및 인력확충과 아울러 환경처로의 승격, 그리고 교통난 해소 및 과학기술의 진흥과 더불어 환경보전을 중점투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예 등이 그것으로서 80년대초에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이다.

이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밝은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되는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이 비좁은 국토에서 환경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환경악화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바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하겠다.

II.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적인 여건

국내외적으로 정치 및 경제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념대립의 퇴색으로 동서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민족주의와 결부된 자국이익우선의 경제이기주의가 일반화 되고있으며, 세계경제의 축이 대서양시대에서 태평양시대로 변환하여 이른바 환태평양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정치의식이 한껏 고양된 상태이고,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의 균형개발과 통상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패턴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지방화시대"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 이후 환경문제에 관한 각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가 팽창됨에 따라 지구환경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 및 탄산가스의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로 지구전체의 기온상승과 기상이변 그리고 황산화물(SO_x)과 질소산화물(NO_x)이 대기중에 과다하게 배출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성우피해 등은 위기에 처한 지구의 파멸을 경고해주는 징후라 하겠다.

국내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실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북경, 천진, 멕시코 시 다음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국제도시라고 발표된 바 있었고, 우리의 측정결과로도 1989년 상반기에는 한강하류 가양지점에서 시안이 검출된 바 있었다.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는 하수처리율이 80년초의 8%에서 '90년 현재 31%로 높아졌고, 분뇨처리장도 확충하여 수거되는 분뇨의 90%가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청정연료인 LNG

국제적으로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 이후 환경문제에 관한 각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가 팽창됨에 따라 지구환경상태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 및 탄산가스의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로 지구전체의 기온상승과 기상이변 그리고 황산화물(SO_x)과 질소산화물(NO_x)이 대기중에 과다하게 배출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성우 피해 등은 위기에 처한 지구의 파멸을 경고해주는 징후라 하겠다.

(액화천연가스)를 수도권 지역에 확대공급하고, 저공해자동차를 생산보급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개선의 기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나 산물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에는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흐르지 않고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III. 당면한 환경오염문제 및 그 해결방향

1.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

가. 상수원의 수질오염

우리모두가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도 수 차례씩 이용하고 있는 수도물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수 오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하겠다. '70년대 도시화가 시작되던 시기와는 달리 현재는 전국적으로 간이상수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약 600개소의 상수원이 있으며 이중 46%는 댐과 주요하천에 위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사

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오염은 전국주요 도시민이 상용하고 있는 음용수의 적정성 여부 내지는 그 수질의 음용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정수후의 관망이나 물탱크의 부실에서 오는 수질오염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한없이 확대되겠지만 수도물에 사용되는 원수 보호측면에서의 상수원수 오염은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상수원수 오염의 원인은 생활하수·공장폐수·축산폐수·농업배수 등 그 오염유형이 다양한데, 그중 생활하수는 년 7%, 축산폐수는 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오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팔당·대청호와 같은 호소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는 광역상수원으로 수질보전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도시주민의 여가이용시설이 들어설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물고기의 양식사업에 적합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호소의 경우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번창해서 오염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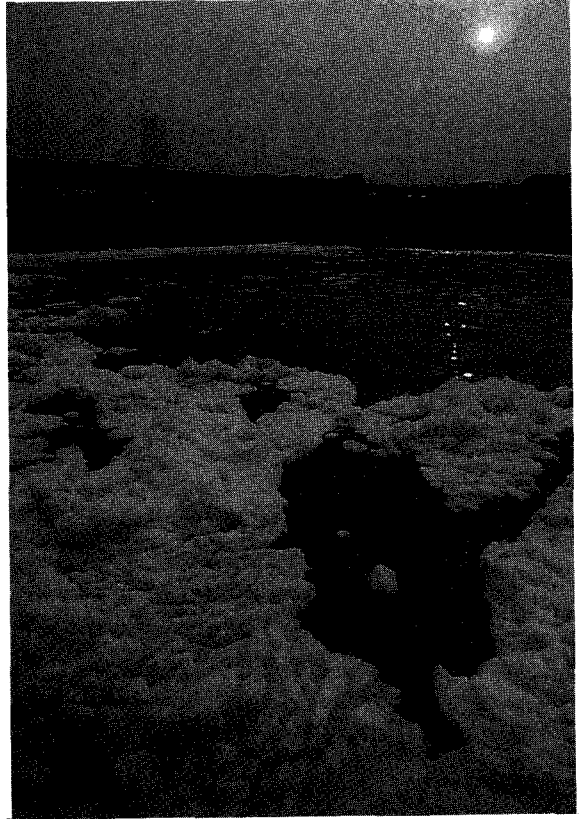
또한, 한강과 낙동강 등의 주요상수원은 대부분 2급 내지 3급수 정도의 수질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 대부분에게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만연시켜 도시민의 상당수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전국의 하천오염

전국의 거의 모든 하천이 다 오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맑은 강이나 시냇물을 더이상 찾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안양천, 금호강, 팽주천 등 대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거나 그 주변의 하천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농업 및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농촌이나 도시근교의 위락지는 생활쓰레기와 축산폐기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며, 공단이나 대형공장의 인근하천은 공장폐수로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다.

또한 광산지역이나 비철금속공단을 가로질러



광산지역이나 비철금속공단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속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마저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그 속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물질이 농도면에서 아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생물체에 농축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에 축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사전에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호르는 하천속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마저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그 속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물질이 농도면에서 아직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생물체에 농축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에 축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사전에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대도시 공기의 악화

서울의 겨울철은 수시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이제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날수가 1년중 절반되지 않는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화학공업이 추가되는 공단 등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인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 공기오염은 주로 전가구의 7할이 사용하는 연탄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SO₂)와 먼지(TSP), 일산화탄소(CO) 그리고 공장, 빌딩의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매 4년마다 배로 늘어나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특히 버스와 대형트럭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매연이 주요오염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유율이 현재 40% 정도로서 미국의 3%, 일본의 1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도심의 공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매연가스 저감이나 그 사용억제는 도시의 대기환경보전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라. 넘치는 쓰레기

생산활동의 증가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매립지 등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처리를 할 수 없는 폐기물이 공장부지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치의 상용과 같은 습식 식생활관습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과는 다른 음식문화로 인하여 1인당 하루에 약 2kg 정도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다. 일본의 1.3kg이나 미국의 0.8kg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연탄재와 음식물 찌꺼기가 주이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이처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거의 다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재활용이나 소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폐기물 재활용정도에 비하면 그 양이 미비한 실정이며, 매립형태도 비위생적인 매립투기(Dumping)가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악취·분진 및 침출수의 누출 등 2차 오염으로 인하여 주변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주민들은 인근지역의 매립지 설치를 한사코 반대하여 좁은 국토내에서 적당한 매립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립량을 감축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더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소각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분리수거체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마. 유해산업폐기물의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4만 5천톤 정도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약 2천톤이상은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이다.

그동안 사업장의 폐기물중 일반산업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대부분 공공매립장에서의 매립을 사실상 묵인해 왔고,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대부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가 과연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염려되는 바가 많다.

그동안 우리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적합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을 적절한 처리시설이나 능력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단투기와 불법처리하는 사례도 상당수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이 본격추진되었지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산업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와같이 관리상태에 많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미·일·구주각국이 경험하였던 바와 같은 유해폐기물로 인한 대형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염려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전에 지금까지의 처리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환경문제

가. 공기중의 중금속물질과 미량의 오염물질
대량생산체제로 변모하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에는 전혀 도외시되었던 오염물질 등이 주요 환경오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카드뮴·납·수은과 같은 물질이 공기중에 증가하고 있는데, 납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유연휘발유와 사업장의 시설에서, 카드뮴은 주로 수입하는 원료나 제련공정에서, 수은은 산업체에서 배출된다. 유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점차 그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이 못되나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석면·PCB·PCP와 같은 물질에 의한 인체피해, 방사성물질·라돈 등으로 인한 오염피해도 장차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나. 광역대기오염

북구와 영국·독일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간의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즉 산성비(acid rain)피해로 인한 분류는 목은 과제가 되고 있지만, 산성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커다란 숙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산성비라고 불리우는 현상은 정확히 말하면 산성침전(acid deposition)인데, 이는 산성비 이외에도 산성눈, 산성이슬 등 대기중의 산성성분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산성침전으로 인한 피해는 지리적 조건

이 중국대륙의 영향권내에 들어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영향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산 고유황연료를 별다른 정화조치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적잖은 산성침전현상이 한반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대·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사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곁들여서 북한의 공업화와 인접국가간의 빈번한 왕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도 상호간에 이에 관한 관련당사국간 협의와 협조체제 등 그 대응방안을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중금속 물질로 인한 하천오염

아직은 이렇다할 뚜렷한 징후는 없으나 '89년에 한강하류에서 중금속물질(시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멀지않은 장래에 하천의 중금속오염을 예견할 수 있는 징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더욱 심화된다면 하천수를 이용한 농작물재배·수산자원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천수를 수도물로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라. 화학물질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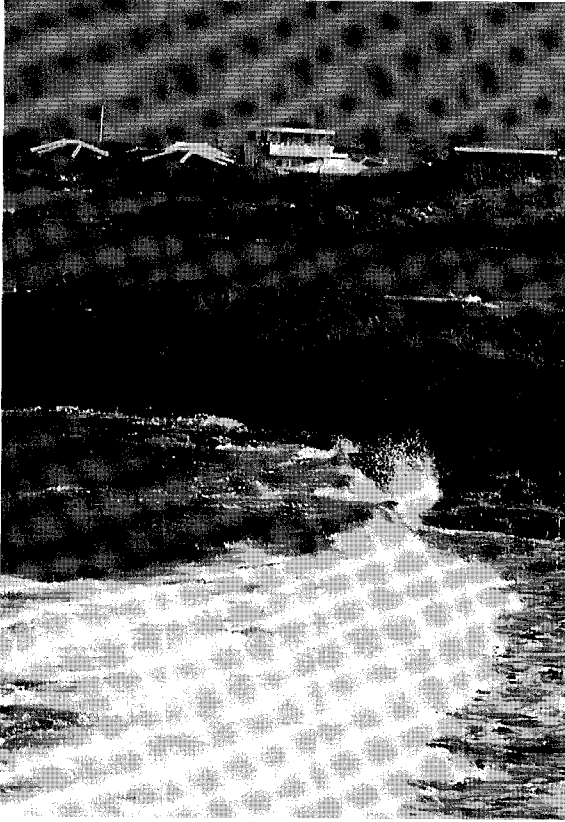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화학물질들이 우리주변에 범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본은 3만 여종, 미국은 6만여종이나 된다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300-5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이 중의 상당부분은 유독물질이 차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제부터라도 이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 황해의 오염

인접 국가와의 관계개선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도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동안 국제정세의



황해의 건전한 보전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보전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의 개발이 가속되고 개발 자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거의 모든 하천이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생태계보고의 하나인 황해가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



변화가 가속되면서 서해안 개발을 앞당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황해에 면하고 있는 주요해안도시의 벨트를 중심으로 공업화를 서두르고 있고, 북한 역시 동포항 등 서해안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해는 수심이 평균 4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천해로서 리아스식 해안 구조로 되어 있어 생태계에 있어 종의 풍부성이 뛰어난 세계 8대 대표해역의 하나인데, 특히 온대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는 황해가 그 대표적인 해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황해의 건전한 보전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보전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의 개발이 가속되고 개발 자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거의 모든 하천이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생태계보고의 하나인 황해가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서해안개발의 전제조건으로서 황해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위치 선정과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하여 환경용량에 적합한 개발 설계를 수립함은 물론,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사업주와 지역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황해의 오염과 관련하여 인접 당사국간의 황해의 해양보전에 관한 협조체제를 제의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IV.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대처방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실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할 환경오염물질의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생산·소비되는 용품의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반면에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간욕구 역시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중구조속으로 미루어 어쩔 수 없는 당

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환경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경제성장은 지속해 나가되, 좁은 국토의 환경상태를 일정수준까지 유지시켜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경제는 매년 일정수준의 성장을 지속시켜야 만이 매년 새로이 배출되고 있는 취업대상인구를 사회적으로 건전한 방향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 하겠고, 이러한 점을 도외시한 채 환경보전대책만을 강구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안목에서 환경문제해결의 추진방향은 성장잠재력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경제성장에 상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Clean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데에 정부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의 개발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이 전부라 할 수는 없겠으나 이의 개발에 좀더 치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임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는 것도 환경문제해결책의 일부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행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연료 및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하수 및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국토이용 및 산림개발과 관련된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보전업무가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조정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현재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투자의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 나가야 하고 오염감시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국민

들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체의 경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외적인 여건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까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에는 적극적이었던 데 반하여 기업체 내부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태도들이 이제까지는 용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기업의 특징을 불확실성과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기회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안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내부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주된 요소의 하나가 바로 환경오염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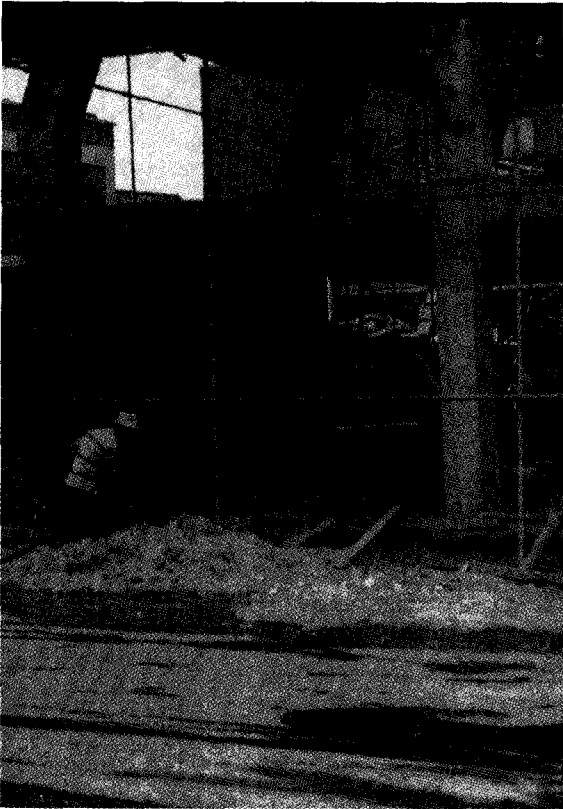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

첫째,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환경오염규제를 피하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환경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산비의 당연한 일부라는 기업윤리를 확고히 하고 방지시설의 설치와 그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발생되는 폐기물이 곧 원료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실태가 곧바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 적정처리를 위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기업이 당면하게 될 환경오염유발이라는 위험요소로부터 기업의 장래를 확실히 보장하는 수단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방법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상의 기술개발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오염방지활동이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판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오염방지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문제해결의 추진방향은
성장잠재력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경제성장에 상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
저공해 내지 무공해기술(Clean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데에 정부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변의 주민들과 환경오염방해로 인한 조정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기업체의 입장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환경오염과 관련한 집단민원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환경보전에 대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자체는 도외시한 채 적은 비용으로 물건만 많이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유일한 목표라는 편향된 사고의 지속은 성장의 잠재력 상실은 물론이요 바로 자신이 배출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신의 삶까지도 파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환경권을 향유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항상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은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재난이 어느 정도이며 그러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및 기술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사전에 세워 두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써 각 기업체에서는 환경위험관리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지침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민들 역시 생산 및 소비생활 양면에서 환경보전의 최종책임자는 우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감시에의 적극적인 참여,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해결책의 요구로 광역오염피해의 사전예방 및 가정에서 과다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배제와 같은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환경감시기능을 생활하는 가운데서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정부·기업 그리고 국민의 경제 3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설때야 비로소 우리 모두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